부산지방기상청

설명자료

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+ 한국판뉴딜 대한민국 대전환

배포일시	2020.12.28.(월) 17:30 (총 4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	담 당 자	과 장 장재동 예보관 임재성
전화번호	051-718-0200 051-718-0351		

연말연시 부울경 강추위

○ 12월 29일 밤~1월 1일 부울경 한파,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

- 체감온도 -15℃ 안팎, 1월 초순 강추위 지속
- 건강관리·수도관 동파 유의, 장기간 이어지는 추위 대비 필요

○ 29일(화) 오후 늦게부터 밤사이 비 또는 눈

- 눈길, 빙판길 교통안전과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 대비 철저!

[12월 30일 오후 예상기압계 모식도]

□ 부산지방기상청(청장 신도식)은 내일(29일) 오후 늦게부터 밤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린 후 연말연시(30일~1월 1일) 동안 강한 한파가 나타나겠다고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.

<예상적설: 29일 늦은 오후(15시)부터 밤(24시) 사이 >

○ 경남서부내륙(거창, 함양, 하동, 산청): 1~3cm
○ 울산, 경남내륙(거창, 함양, 하동, 산청 제외): 1cm 내외

<예상강수량: 29일 늦은 오후(15시)부터 밤(24시) 사이 >

○ 부산, 울산(18~24시), 경상남도: 5mm 내외

[기압계 전망]

□ 부산지방기상청은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면서 12월 29일 밤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강한 한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.

○ 29일 밤부터 대륙고기압에 의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낮아지기 시작하겠고, 12월 30일~1월 1일은 5km 상공에 - 30℃ 안팎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추위의 강도가 강해질 것으로 분석했다.

○ 이후, 1월 2(토)~3일(일)은 찬 공기의 유입 강도가 다소 주춤하겠지만, 4일(월)부터 다시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1월 초순에도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.

부산지방기상청

[추위 전망]

□ 29일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하여, 30일~1월 1일의 아침 최저기온은 경남내륙이 -9℃ 안팎, 그 밖의 부산, 울산과 경남 남해안은 -7℃ 안팎을 보이면서 강한 한파가 이어지겠다고 밝혔다.

○ 29일 부울경에 비/눈이 내린 후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고 이후에도 추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쌓인 눈이 녹지 않거나 비가 얼어붙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다며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.

○ 특히, 30일은 부울경 낮 최고기온이 0℃에서 영하권에 머물고, 31일(목)은 아침 최저기온이 부산 - 7℃, 그 밖의 경남내륙은 - 10℃ 안팎으로 내려가는 등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.

○ 또한, 이 기간(12. 30.~1. 1.) 동안 바람도 강하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5~9℃ 가량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,

○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함은 물론 선별진료소 등 야외 업무 종사자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권고했다.

□ 1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의 유입 강도가 다소 주춤하면서 일시적으로 추위가 약해지겠지만, 4~5일부터 다시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고, 이후에도 추위가 이어지겠다고 내다봤다.

○ 기상청 예보관은 “추위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건강관리와 함께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와 비닐하우스 농작물의 냉해 피해에 대한 유의도 필요하다”고 당부했다.

[강풍과 풍랑 전망]

□ (강풍) 30일 새벽부터 부산, 울산, 경남남해안에는 바람이 35~60km/h(10~16m/s)로 강해지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, 그 밖의 경남내륙에서도 30~50km/h(8~14m/s)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했다.

○ 또한,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예상된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, 화재예방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면서, 1일까지도 바람이 강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.

□ **(파도)** 30일부터 31일까지 남해동부전해상, 동해남부남쪽먼바다와 울산앞바다는 35~70km/h (10~20m/s)의 강한 바람과 함께 먼바다를 중심으로 2~5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전망했다.